

빌개 카간 비문의 남쪽 면 제11행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 관하여*

이 용 성**

[초 록]

돌궐어는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튀르크어 방언이다. 이 언어는 오늘날의 몽골국에서, 주로 오르콘(Orkhon) 강 유역에서 발견되어 편하게 오르콘 비문들로 불리는 비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켈 테긴(Kül Tegin) 비문, 빌개 카간(Bilgä Kagan) 비문, 투뉴쿠크(Tunyukuk) 비문, 이시바라 타르칸(Išbara Tarkan = 옹기(Ongi)) 비문과 켈리 초르(Küli Čor = 이헤 휘쇼튀(Ikhe-Khüshötü)) 비문이다.

켈 테긴 비문과 빌개 카간 비문은 많은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 빌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역사기초자료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SRK-1230002).

2017년 3월 17일에 열린 ‘단국대학교 부설 북방문화연구소 제18회 국제학술대회 — 북방민족 고유문자와 몽골 고고학 I’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

주제어: 돌궐어, 빌개 카간 비문, 켈 테긴 비문, 훼손된 부분들

Bilgä Kagan Inscription, Damaged Parts, Kül Tegin Inscription, Orkhon Turkic

의 러시아 튀르크학자 빌헬름 라들로프(Wilhelm Radloff, 1837~1918)는 1894년 3월에 오르콘 비문들에 관해 자신이 준비할 저서의 제1부를 발간하였고, 이 저서의 제2부는 같은 해 5월에, 제3부는 1895년에 발간되었다. 오르콘 및 예니세이 비문들에 관한 이 저서는 서둘러 준비되었기 때문에 해독과 주석이 오류투성이이다.⁴⁾

라들로프처럼 서두르지 않은 톰센은 1896년에 켈 테긴 비문과 빌개 카간 비문을 다룬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라는 오르콘 비문들에 관한 최초의 완벽한 출판물을 냈고 오르콘 비문들에 관해 더 나중에 연구한 학자들은 이 저서를 자기들의 연구 및 출판물들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⁵⁾ 지난 100여 년간 톰센의 연구를 기준으로 라들로프의 연구도 참조하면서 각종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두 학자의 업적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본래의 오르콘 비문들(켈 테긴 비문과 빌개 카간 비문)에서 사용된 옛 튀르크 룬 문자는 38 글자로 이루어진다. 투뉴쿠크 비문에서는 각각 한 번씩 사용된 2 개의 음절 부호(부호 aš와 부호 baš)와 함께 이 문자에 있는 글자의 수가 40이 된다. 이들 비문에서 사용된 문자에 있는 글자들 중 4 개는 모음 부호이고, 이 부호들 각각은 모음을 두 개씩 나타낸다: a/ä, i/i, o/u 및 ö/ü. 문자에 있는 전설/후설의 쌍으로 된 자음 부호 체계와 튀르크어에 있는 모음조화는 모음 /a/와 /ä/ 및 모음 /i/와 /i/를 잘못 읽는 것을 막지만 원순모음 /o/와 /u/ 및 원순모음 /ö/와 /ü/를 이 문자에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⁶⁾

켈 테긴 비문과 빌개 카간 비문은 많은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⁷⁾ 빌개

비문 —], 서울: 제이앤씨, p. 32.

4) Talat Tekin (2008), p. 33.

5) Talat Tekin (2008), p. 33 참조.

6) 탈랏트 테킨, (2012), 『돌궐어 문법』,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pp. 41-42 참조.

7) 빌개 카간 비문의 북쪽 면에 있는 비명은 마지막 7 행을 제외하고는 켈 테긴 비문의

카간 비문은 켈 테긴 비문보다 보존 상태가 훨씬 나쁘다.⁸⁾ 이미 19세기 말에 빌개 카간 비문에는 심하게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⁹⁾ 이들 부분은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이들 중 하나가 남쪽 면 제11행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이다.

남쪽 면에 있는 비명과 동일하다. 빌개 카간 비문의 동쪽 면에 있는 제 2~24행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켈 테긴 비문의 동쪽 면에 있는 제 1~30행과 동일하다.

- 8) Talat Tekin (1968), p. 10 및 Talat Tekin (2008), p. 50 참조. 이 두 비문은 이제 인근의 박물관으로 옮겨져 실내에서 보존되고 있다(사진 1).
- 9) Wilhelm Radloff (1893), *Atlas der Alterthümer der Mongolei, Zweite Lieferung*, St. Petersburg: Buchdruckerei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의 탁본 및 가목본 자료를 보아도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Cengiz Alyılmaz (2005), *Orhun Yazıtlarının Bugünkü Durumu*, Ankara: Kurmay, p. 106에서는 “Bilge Kağan yazıtı da tıpkı Köl Tigin yazıtı gibi aradan geçen yaklaşık 1300 yıllık süreç içinde önemli ölçüde tahrip olmuştur.” [“빌개 카간 비문도 꼭 켈 테긴 비문처럼 대략 13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파괴되었다.”], p. 125에서는 “Bilge Kağan yazıtının güney yüzü, 15 satır Köktürk harfli metni içermektedir. Ancak yazıtın bu yüzünde yer alan yazılı yüzeylerin büyük bölümü, geride kalan süreçte kabarık / yapraklaşmış tabakalar hâlinde dökülmüştür. Yazıtın bu yüzünde sağlam bir satırla karşılaşmak mümkün değildir.” [“빌개 카간 비문의 남쪽 면은 15 행의 돌궐 문자로 된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비문의 이 면에 있는 글자가 새겨진 표면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부풀어 올라 / 얇은 층이 저서 층층으로 떨어졌다. 비문의 이 면에서 온전한 행과 마주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진 2를 볼 것. 필자도 박물관에서 두 비문을 두 번 보았는데 Wilhelm Radloff (1893)의 탁본 및 가목본 자료와 비교할 때 훼손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초의 자료인 IO (1892)는 탁본 및 가목본 자료가 아니라 돌궐 문자를 사용하여 다시 식자 작업을 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원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의 돌궐 문자로 된 본문 자료들도 이렇하다. Wilhelm Radloff (1893)의 탁본 및 가목본 자료를 빌개 카간 비문과 켈 테긴 비문 연구의 원 자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p. 315)

[Qoqlıq u(정확히는 ü).. altun kümüs kârgâksız kâlırtı “그들은 향 ... 끝 없는 양의 금과 은을 가져왔다.”]

2.15. Clauson (클로슨 1972)

(five hundred men, led by Li Sün T'ai Chiang-chün, came (from China to the funeral)) **koklık**¹⁵⁾ [one or two words] **altun kümüş kergeksiz ke-lürti**: ‘they brought large quantities of ... gold and silver’ II S 11. (p. 610b)

[리쑤(李侗) 대장군이 이끄는 500명의 사람이 (중국에서 장례식에) 왔다] qoqlıq [한 개나 두 개의 낱말] altun kümüş kârgâksız kâlırtı: “그들은 대량의 향 ... 끝없는 양의 금과 은을 가져왔다.”]

2.16. Tekin (테킨 1988)

kook(i)l(i)k : ö[.....] : (a)ltun : küm(ü)ş : k(e)rg(e)ks(i)z : k(e)lürti : (p. 54)

“Kokuluk [.....] altın (ve) gümüş bol miktarda getirdi.” (p. 55)

[*kook(i)l(i)k* : ö[.....] : (a)ltun : küm(ü)ş : k(â)rg(â)ks(i)z :

15) 이 낱말에 관하여 Sir Gerard Clauson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The Clarendon Press, p. 610b에서는 “**koklık** Hap. leg.; there is no clue to the meaning of this word; it has hitherto been translated ‘perfumes’ owing to a supposed connection with **1 kok-**, but morphologically it could not be derived from that V. and that meaning could not be obtained from it.” [qoqlıq 딱 한 번 나온다; 이 낱말의 의미에 대한 단서가 없다; 동사 **kok-** [‘냄새나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지금까지 ‘향수’로 번역되어 왔지만, 형태상으로 그것은 그 동사에서 파생될 수 없고 그 의미도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다.]라는 정보가 있다.

k(ä)lürti : “그들은 향료 [.....] 금(과) 은을 풍부하게 가져왔다.]

2.17. Tekin (테킨 1995)

kokılık ö[.....] altun kümüş kergeksiz kelürti (p. 78)

“Kokuluk [.....] altın (ve) gümüş bol miktarda getirdi.” (p. 79)

[kokılık ö[.....] altun kümüş kârgâksiz kälürti “그들은 향료 [.....] 금(과) 은을 풍부하게 가져왔다.]

2.18. Tekin (테킨 2000)

altun kümüş kârgâksiz kälürti (p. 147)

“Ziyadesiyle altın ve gümüş getirdiler” (p. 147)

[altun kümüş kârgâksiz kälürti “그들은 다량으로 금과 은을 가져왔다.”]

2.19. Berta (베르터 2004)

wKWKLK : W[(...)]LTWN : k^Wms : krgksz : kl^WrI : (p. 118)

qoqlwq W... altwn kümwš kâryâksiz kälw̄rDi (p. 175)

“... aranyat és ezüstöt korlátlanul hozatott.”¹⁶⁾ (p. 201)

16) 이 문장은 Árpád Berta (2010), translated by Emine Yılmaz, *Sözlerimi İyi Dinleyin..., Türk ve Uygur Runik Yazıtlarının Karşılaştırmalı Yayını*, Ankara: Türk Dil Kurumu., p. 199에서는 터키어로 “... altın ve gümüş hadsiz hesapsız getirdi. [그(들)는 ... 금과 은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져왔다.]”로 번역되어 있다.

kokılık : ö[.....] : *altun* : *kümüş* : *kergeksiz* : *kelürti* : (p. 131)
“Kokılık [... ..] altın ve gümüşü gereğinden fazlasıyla getirdi.” (p. 146)
[kokılık : ö[.....] : *altun* : *kümüş* : *kârgâksiz* : *kälürti* : “그들은
향료 [... ..] 금과 은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다.”]

2.24. Şirin (시린 2016)

kok(ı)l(ı)k : [...] (a)ltun : *küm(ü)ş* : *k(â)rg(â)ks(i)z* : *k(â)lürti* : (p. 260,
335, 337, 405, 457)

3. 결론

위에서 보았듯이, Radloff (1895)를 제외한 모든 연구자들은 **М** (ö 또는 ü) 다음의 빈 곳들을 읽을 수 없었다. 돌궐어를 비롯하여 튀르크계 언어들에서는 ü로 시작되는 수사로서 *üč* ‘3’이 있다. 그리하여 Radloff (1895)는 빈 곳들을 *үч түмән ағы*, 즉 *üč tūmān aγī*로 읽긴 했지만 이 낱말들을 번역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어떠한 연구자도 그의 *üč tūmān aγī*라는 독법을 주목하지 않았다.

문제의 문장은 켈 테긴 비문의 북쪽 면 제12행에 있는 다음의 문장과 비교될 수 있다:

tabgač : *kaganta* : *išiyi* : *likāŋ* : *kälti* : *bir tūmān aγī* : *altun kümüş* : *kârgâksiz* : *kälürti* : “중국 황제에게서 이시이 리캥(*Išiyi Likāŋ* 呂向)이 왔다. 그는 10,000필의 비단,¹⁸⁾ 금과 은을 풍부하게 가져왔다.”

18) 영어 번역을 위해서는 Tekin (1968), pp. 271-272을 볼 것. 영어 번역에 있는 ‘an immeasurable quantity of treasures’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보물’] 대신에 ‘10,000 rolls of silk brocade’ [‘10,000필의 비단’]이 알맞을 것이다.

그런데, Radloff (1893: XXV)를 보면 빌개 카간 비문의 남쪽 면 제11행에는 13 개의 글자가 들어갈 만한 빈 곳이 있다.¹⁹⁾ Radloff (1895)의 독법은 4 개의 글자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남으므로 조금 문제가 있다. üč 다음에는 tört ‘4’가 있었을 것이다. 돌궐 비문들에서는 대략의 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들도 있다:

eki üč biŋ : sümüz : kältäčimiz : bar mu nä : “2, 3천의 우리의 군대, 우리의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투뉴쿠크 비문 제14행)

k^oorīgu : eki üč : kišiligü : täzip bardī : “보호자는 몇 (글자 그대로는 ‘두세’) 사람과 함께 달아나 갔다.” (빌개 카간 비문 동쪽 면 제41행)

그러므로 Radloff (1895)의 독법을 수정하면, 우리는 문제의 문장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 ꠠꠡꠢꠣꠤꠥ : ꠦꠧ꠨꠩ : ꠪꠫꠬ : ꠮꠯꠰ [: ꠲꠳꠴꠵꠶ : ꠸꠹꠺꠻꠼ : ꠾꠿꠺꠻꠼

k^ookilik : ü[č tört : tümän agī :] altun : kümüş : kargaksiz : kälürti : “그들은 향수, [30,000~40,000필의 비단], 금은을 풍부하게 가져왔다.”

중국에서는 쉐 테긴의 장례식에는 10,000필의 비단을 보냈지만, 그의 친형이자 돌궐 제국의 우두머리인 빌개 카간의 장례식에는 그 서너 배인 30,000~40,000필의 비단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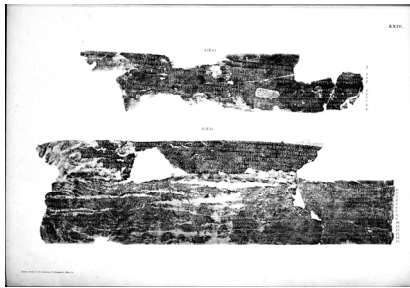
19) 사진 4를 볼 것(<http://dsr.nii.ac.jp/toyobunko/Lc-22/V-1/page-hr/0079.html.en> (2017년 9월 10일 접속)).



[사진 1] 빌개 카간 비문(왼쪽)과 쥘 테긴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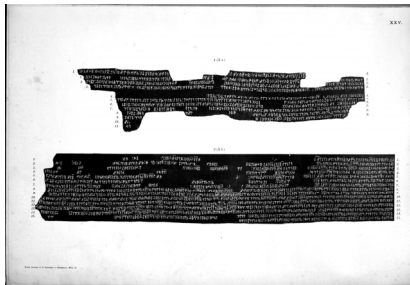


[사진 2] 빌개 카간 비문의 남쪽 면



[사진 3] 빌개 카간 비문의 남쪽 면(위쪽)과 북쪽 면(아래쪽)의 탁본

출처 : <http://dsr.nii.ac.jp/toyobunko/Lc-22/V-1/page-hr/0077.html>,en



[사진 4] 빌개 카간 비문의 남쪽 면(위쪽)과 북쪽 면(아래쪽)의 가목본

출처 : <http://dsr.nii.ac.jp/toyobunko/Lc-22/V-1/page-hr/0079.html>,en

참고문헌

- Tekin, Talat (2008), 『돌궐 비문 연구 — 쥬 토키 비문, 빌게 카간 비문, 투뉴쿠 크 비문 —』, 서울: 제이앤씨 (번역: 이용성).
- 탈랴트 테킨 (2012), 『돌궐어 문법』, 광주: 한국학술정보(주) (번역: 이용성).
- Ajdarov, Gubajdulla (1971), *Jazyk orxonskix pamjatnikov drevnetjurkskoj pis'mennosti VIII veka*, Alma-Ata: Nauka.
- Alyılmaz, Cengiz (2005), *Orhun Yazıtlarının Bugünkü Durumu*, Ankara: Kurmay.
- Aydın, Erhan (2012), *Orhon Yazıtları (Köl Tegin, Bilge Kağan, Tonyukuk, Ongi, Küli Çor)*, Konya: Kömen.
- Berta, Árpád (2010), translated by Emine Yılmaz, *Sözlerimi İyi Dinleyin..., Türk ve Uygur Runik Yazıtlarının Karşılaştırmalı Yayını*, Ankara: Türk Dil Kurumu.
- _____ (2004), *Szavaimat jól halljátok..., A Türk és Uygur rovásírásos emlékek kritikai kiadásá, Szeged: JATEPress.*
- Clauson, Sir Gerard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The Clarendon Press.
- Ergin, Muharrem (1970), *Orhun Âbideleri*, İstanbul: Millî Eğitim Basımevi.
- Malov, Sergej Je. (1959), *Pamjatniki drevnetjurkskoj pis'mennosti mongolii i kirgizii*, Moskva & Leningrad: Izdatel'stvo Akademii Nauk SSSR.
- Orkun, Hüseyin Namık (1936), *Eski Türk Yazıtları I*, İstanbul: Devlet.
- Radloff, Wilhelm (1897),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Neue Folge, St. Petersburg: Eggers.
- _____ (1896), *Atlas der Alterthümer der Mongolei*, Dritte Lieferung, St. Petersburg: Buchdruckerei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_____ (1895),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Dritte Lieferung, St. Petersburg: Eggers.
- _____ (1894),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Erste Lieferung; Zweite Lieferung, St. Petersburg: Eggers.

- Radloff, Wilhelm (1893), *Atlas der Alterthümer der Mongolei*, Zweite Lieferung, St. Petersburg: Buchdruckerei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Radlov, Vasilij Vasil'evič [= Wilhelm Radloff] & Platon M. Melioranskij (1897), *Drevnetjurkskije pamjatniki v Košo-Cajdame*, Sbornik Trudov Orxonskoj ekspedicii, T. IV, Sanktpeterburg: Tipografija Imperatorskoj Akademii Nauk.
- Societe Finno-Ougrienne (1892), *Inscriptions de l'Orkhon recueillies par l'expédition finnoise 1890*, Helsingfors: Imprimerie de la Société de Littérature Finnoise (= IO).
- Şirin, Hatice (2016), *Eski Türk Yazıtları Söz Varlığı İncelemesi*,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1181, Ankara: Türk Dil Kurumu [⇒ Hatice Şirin User].
- Tekin, Talat (2000), *Orhon Türkçesi Grameri*, Ankara: Şafak Matbaacılık.
- _____ (1995), *Orhon Yazıtları: Kül Tigin, Bilge Kağan, Tunyukuk*, İstanbul: Simurg.
- _____ (1991), “A New Classification of the Turkic Languages”,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1, pp. 5-18.
- _____ (1988), *Orhon Yazıtları*, Ankara: Türk Dil Kurumu.
- _____ (1968), *A Grammar of Orkhon Turki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The Hague: Mouton & Co.
- Thomsen, Vilhelm (1924), “Alttürkische Inschriften aus der Mongolei, in Übersetzung und mit Einleitung”, übersetzt von Hans Heinrich Schaeder,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78, pp. 121-175.
- _____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Helsingfors: Imprimerie de la Société de Littérature Finnoise (=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V).
- User, Hatice Şirin (2009), *Köktürk ve Ötüken Uygur Kağanlığı Yazıtları*, Kömen Yayınları: 32, Türk Dili Dizisi: 1, Konya: Kömen [⇒ Hatice Şirin]

9월 10일 접수).

<http://dsr.nii.ac.jp/toyobunko/Lc-22/V-1/page-hr/0267.html.en> (Radloff 1896) (2017년

9월 10일 접수).

원고 접수일: 2017년 9월 13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일

Abstract

On the Second Sentence of the 11th Line on the South Side of the Bilgä Kagan Inscription

LI, Yong-Söng*

Orkhon Turkic is the oldest Turkic dialect whose written records have come down to us. It is known to us through the inscriptions found in present-day Outer Mongolia, mainly in the basin of the Orkhon River, thus being conveniently called ‘the Orkhon inscriptions’. These are the Kül Tegin, Bilgä Kagan, Tunyukuk, Išbara Tarkan (Ongi), and Küli Čor (Ikhe-Khüshötü) inscriptions.

Many parts of the Kül Tegin and Bilgä Kagan inscriptions are identical. The Bilgä Kagan inscription is in a worse state of preservation than the Kül Tegin inscription. There were already many severely damaged parts in the Bilgä Kagan inscription in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se parts have not been read properly. One of them is the second sentence of the 11th line on the south side.

Modifying the reading of Radloff (1895), we can now read the sentence in question as follows:

: 𐰽𐰺𐰍𐰏𐰤 : 𐰽𐰺𐰍𐰏𐰤 : 𐰽𐰺𐰍𐰏𐰤 : 𐰽𐰺𐰍𐰏𐰤 [: 𐰽𐰺𐰍𐰏𐰤 : 𐰽𐰺𐰍𐰏𐰤] 𐰽𐰺𐰍𐰏𐰤

k'okilik : ü[č tört : tümän agi :] altun : kümüš : kargäksiz : kälürti

“They brought scent, [30,000~40,000 rolls of silk brocade], and gold and silver in abundance.”

* Lecturer,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